

민주 황운하, 총선 불출마 선언... “당 단합 · 더 큰 승리 위해”

26일 국회서 기자회견... “울산 사건으로 당에 누끼치지 않고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사진)이 26일 4·10총선 불출마 선언했다.

초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민주당이 위기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받은 황 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복기소도 억울했지만 법원이 잘못된 기소를 바로 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점은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하지만 잘못된 1심 판결이 제 공천 결정을 뒷추는 사유가 된 것은 더 큰 상처였다”며 “저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다.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 당시 현법상 무죄추정의 원

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러나 저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밀거울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불출마 이유를 전했다.

황 의원은 “이제 저의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민주시민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을 수 있기만을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율려 황 의원은 “이번 불출마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시련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가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저의 행군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억울하지만 이른바 울산사건 1심 판결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에 불리한 소재로 우리당이 공격을 받는다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의원은 “상대 정당 국민의힘도 1심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이 단

수공천 된 바 있어서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는다”며 “무엇보다도 검찰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검찰의 프레임을 당이 인정하는 틀이라는 목소리가 저를 마지막까지 내가 물려서면 안된다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황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명분이 검찰개혁이고,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높이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돋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는 이후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민주당도 조국신당도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의 불출마로 민주당 대전중구는 박용갑 전 중구청장과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만 남게 됐으며,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정복기자

당진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윤석열 대통령 15번째 민생토론회서 발표

… 복합 물류단지 · 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



서산공군비행장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진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당진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지방시대를 여

는 혁신 선도사업을 이끌게 됐다.

당진시는 SK엔터테인먼트, 충남연구원, 당진시협력단 등과 협력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앵커기업인 SK엔터

카(주) 등과 함께 총사업비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에 약 50만m² 규모로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의 한 종류로, 민간 기업 주도로 산업과 산업, 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기업혁신파크 조성 시 토지수용권과 법인세 감면, 개발계획의 통합 심의, 주민입도로 국비 지원 등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기업혁신파크 내에 기업 입주 공간도 있는 만큼 시가 추진 중인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당진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구축 등 다른 부처들의 공모사업에 추가로 도전해 기업혁신파크 내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공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수립과 통합 심의 통과 등 기업혁신파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업혁신파크가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기업혁신파크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 기자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 “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율려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원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

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 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평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평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선 기자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블로그/인스타 DM
메일 - clablab_10@naver.com
문자 전화 - 070-8098-1834



“풍부한 국정경험으로 서산·태안 발전 앞장”

< 4·10 총선 현장을 가다 >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충남 서산·태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서면 인터뷰 했다. 다음은 조한기 후보와의 일문일답.

▲ 이번 총선 출마 이유는?

‘여한 없이 제 몸을 던져 보겠다’,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12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섣부른 아념과 설부론 신념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4번의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제 불찰, 제 부족한 때문에 태안과 서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낙선했던 덕분에 비로소 저는 태안과 서산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장관 보좌관 국무총리 비서관 청와대에서 대통령 의전비서관, 제1부속비서관으로 쌓아 온 제 국정 경험을 태안과 서산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준비되었으니 이번만큼은 조한기를 한번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겹손히되, 간절하게 유권자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후보에게 서산, 태안은 어떤 곳인가?

태안군 인면을 청기리에서 태어났으며, 초중고를 서산에서 나왔습니다. 유년시절, 소년시절을 태안과 서산에서 보냈습니다. 서산과 태안은 제게 있어 어머니의 태반과 같은 곳입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할 때나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고민을 할 때, 저는 늘 서산과 태안을 찾았습니다.

그런 서산과 태안을 위해, 서산과 태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쳐보고 싶습니다.

▲ 주요공약에 대해?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전 국가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모든 방면을 이루르는 결혼·출산 종합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서산, 태안 지역의 SOC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수도권에 비해 절대 불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때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혁하여 우리 지역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서산, 태안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미래산업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첨단석유화학 단지, 전기·수소완성차 단지, 미래 항공모빌리티 실증단지,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개설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서산, 태안 지역에는 우수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 관광 자원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이 찾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안화력이 단계적 폐쇄에 돌입합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민 채용 확대를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건설하고 기업들의 인전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장점?

저는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행정부, 종리실, 청와대의 핵심 비서관, 당의 중요 요직을 경험했습니다. 당정청의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후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랑입니다. 4번 낙선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당선되기 수월한 수도권 출미를 권유받았으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서산·태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러한 진실과 풍부한 경험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꼭 쓰이길 바랍니다.

▲ 서산·태안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산>

서산지역은 공업지역의 성격과 농촌지역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적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며, 새로운 시기지가 몇 년에 하나씩 들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과, 치과를 비롯한 개업 의원들의 경영 상태도 여타의 도시들

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의 성장세가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서산지역 산업의 강점인 석유화학과 자동차 영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첨단석유화학 단지 조성과 수소·전기완성차 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실증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젊은 세대의 정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자리 주변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의 필수 인프라와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의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존재합니다.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귀농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성연 등 신도시 지역에 특화된 지역 공약을 준비하였고, 농촌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농민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태안>

사실 태안군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농어촌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산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습니다.

태안은 태안읍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이원의 굴이 알도 굽고 싱싱한데 그 굴을 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비자락을 채취할 사람도 곧 사라질 겁니다. 농촌이 망가지면 도시가 멀쩡할 리 없고 지역이 소멸하는데 수도권이 훌로 좋아질리 없습니다.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지역소멸을 막는 것이 되었습니다. 쌀 등 중요 농어업 산물이 험당한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농어민수당이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을 관리할 공적 체계를 만들고 농촌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올 기본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농어촌에 그 돈을 쓰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저출생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막는 방안 속에 그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일자리 확보, 그에 따른 대체 미래 산업을 키우는 것도 태안의 시급한 숙제입니다.

지금처럼 어설픈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민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종의를 모아야 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별법에 서명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합니다.

기업도시 또한 이대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국제학교, 테마파크, 고급 주거단지, 연관 첨단 산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노부현 정부에서 터를 뒀은 이후 너무 오랜 시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회의 땅을 온전히 태안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합니다.

▲ 서산, 태안의 가장 시급한 사업을 꼽는다면?

현재의 위협과 앞으로의 다가올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로 인한 지역소멸의 문제가 현재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왜 아프지 않았습니까? 왜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아팠지만 현명하신 유권자분들을 믿었습니다. 제 믿음의 원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조한기를 한번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맞서 12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서산태안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바다’가 망가지는 것을 저지하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간언이 설로도 방시능 ‘오염수’가 ‘오염 처리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 바다의 생신물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 엄마들의 염원을 맨몸으로라도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지 않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어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모른 체하는 정치권의 현태를 바꾸겠습니다.

조한기, 준비됐습니다. 서산태안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 조한기에게 지지를 보내 주십시오.

2024년 4월 10일, 서산·태안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이 우리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서산=김정한 기자

●정정●

수석교사 임명장 전수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7일
오전 10시 시
교육청 교육
감실에서 열
리는 2024년
3월 1일자 수석교사 임명장 전
수식 참석.

1분기 민주평통 정기회의



박희조 동구청
장= 27일 오
후 5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
년 1분기 민주
평통 정기회의에 참석.

업무협약식



김영빈 부구청
장(중구청 장
권한대행)=
27일 오후 2시
중구청 구민
사랑방에 서
열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서철모 서구청
장= 27일 오
전 11시 서구
청 대체실에
서 1분기 서구
통합방위협의
회 정기회의 참석.

이·취임식



정용래 유성구
청장= 27일 오
전 10시 30
분 대전 농업
기술센터에
서 개최되는
한국농촌지도자
대전시연합회
회장이 · 취임식에 참석.

노인일자리별대식



최충규 대덕구
청장= 27일 오
전 10시 청
소년어울림센
터 대강당에
서 열리는 대
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
리 별대식에 참석.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계획

수립·시행… 대덕구, 본격 시행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2024년
아동학대 예방·보호계획을 수립, 본
격 시행에 들어갔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정부
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방침에 따르
면 그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
가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21년 11월부
터 24시간 대응체계로 학대피해 아동
의 발견과 보호조치, 전반적인 조사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시 및 대덕구 통계자료에 따르
면 지난 2022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 신
고 건수는 약 1100여건이다. 5개 자치
구 중 대덕구가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
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2022년 189건 △2023년 240건으로
전년대비 27%나 증가했다.

또, 학대유형은 △정서학대 33% △
신체학대 11%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폭력과 부부싸움 노출에 의
한 아동의 정서학대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8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이스포츠의 도시 대전, 3월부터 배틀그라운드모바일 프로시즌·이터널 리턴 정규시즌 개최

전국 유일 프로정규시즌 단독 유치



대전시는 이스포츠 배틀로얄
장르의 대표 종목인 배틀그라운
드 모바일 프로시즌(이하
PMPS)와 이터널 리턴 2024 정규
시즌을 단독 유치하고, 3월 1일부
터 'PMPS 시즌0'을 시작으로 경
기를 개최한다.

'PMPS'는 국내기업인 크래프
톤이 개발하여 2018년 5월 공개
한 게임으로 2023년 항저우 아시
안게임 최초 이스포츠 정식 종목

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2년 기
준 세계 2위의 서버이벌 슈터 게
임으로 디수 인원이 배틀로얄 형태
로 참여한다.

카카오게임즈에서 서비스 중
인 '이터널 리턴'은 2023년 7월
에 정규리그 정식 오픈 이후 글로
벌 개인 유통플랫폼 스팀에서 인
기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급성
장하고 있는 국산 게임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특히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이터널 리턴 내셔널리그'는 최
초의 지역 연고 구단리그로 개최
할 계획으로 이스포츠 구단과 해
당 지자체 간의 지역 연고제 연결
고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
미가 있다.

아울러 대전 이스포츠경기장
은 아레나 형식으로 64명의 선수
들이 동시에 게임을 겨룰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전용 경기장으로 이
스포츠 팬들에게 '배틀로얄 FPS
의 성지'로 통한다.

이장우 대전시 장관은 "지난해
LCK 서머 결승전 개최에 이어 올
해 배틀로얄 장르의 정규 프로시
즌을 유치했다. 앞으로도 지속적
인 대회 유치를 통해 대전이 명실
상부한 이스포츠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0시축제 기간 중 이스포
츠 대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대전을 찾는 많은 방
문객들에게 이스포츠와 0시 축
제를 함께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터널
리턴의 종목사 '님블뉴런' 김승
후 대표는 "이스포츠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연고가 필수"라
며 "이번 대전시와의 정규시즌 개
최와 연고팀 구성은 지자체와 게
임 종목사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
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태선 기자

동구, '백일해 예방 접종비'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추진 중
인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
접종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부24
와 연계한 온라인에서도 가능해
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
며 현재까지 335명의 임신부와

배우자가 지원 혜택을 받아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접종비 신청 방
법이 방문 신청만 가능해 바쁜 직
장인들과 이동이 어려운 산모들
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구는 방문 신청뿐만 아니
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을 개편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접속
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세
부내역서, 등본 등 첨부서류를 등
록하면, 담당자가 접수 및 확인 후
검토 작업을 거쳐 지급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중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대상자 모집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비 냉방기기 보급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
는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
해 냉방기기를 보급하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

대 가구 등 저소득층 105세대이
며, 구는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
고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된 세대에 벽걸이에어
컨(약 7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
다.

다면,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
유지급여 대상 가구, 공공기관 소
유 주택,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
보유가구 및 해당 사업 지원 후 8
년 이내 재지원 신청가구, 설치 부
적합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
외된다.

지원 신청은 4월 5일까지 거주
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

며, 대상가구 적격 확인 시 한국에
너지재단에서 냉방기기 보급 및
설치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향상되어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김태선 기자

유성구, 마을문제 해결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선다

2024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단체 공개모집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내달 15
일까지 1억 7천만원 규모의 '2024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유성매직 공모사업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
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열매 단계별로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의제
해결형 기획공모는 총 8개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4백만원부터 최
대 8백만원까지 보조한다.

공모신청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으며, 공모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유성구청 또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공동체지원센터 ☎ 042-861-3501~4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간
서로 화합하고 마을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이야말
로 자치분권의 근간"이라며 "앞
으로도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
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
했다.

김태선 기자

한울5·6호기 고유원전연료 HIPER16 상용장전 인허가 취득

한전원자력연료, 한울5호기에 최초 8월 상용장전 계획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최익수)
는 지난 22일 제191차 원자력안
전위원회 심의 결과 '한울5·6호기
고유원전연료(HIPER16) 상용장
전' 인허가를 취득해 한울5호기
에 최초로 금년 8월에 상용장전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 유 원 전 연 료 인
HIPER16(High Performance with
Efficiency and Reliability)은 원전
기원기술 확보와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전략과제로 채
택되어,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
수력원자력이 2005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기술개발을 완료
했다. 이후, 한울6호기에 시범집
합체를 장전해 원자로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했고, 2018년에 한울

5호기 상용장전을 위한 인허가
를 신청했다. HIPER16은 열적 성능과 내진
성능 등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연
료손상 가능성을 낮춘 고성능 고
유원전연료로, 퀘코 등 원전 해
외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한국
형 녹색분류체계 요건인 사고저
항성핵연료의 모체가 될 예정이
다.

최익수 사장은 "HIPER16은 고
성능 고유원전연료로서,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원전수출의 기반
이 될 예정"이라며, "청정에너지
로서의 원전 역할을 위한 사고저
항성핵연료 개발을 회사 역량을
집중해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
했다.

송병배 기자

한울5, 6호기 고유원전연료 HIPER16 최초 상용장전 인허가 취득



탄동농협, 조합원 운영공개 실시

탄동농협 19개 관할 전 영농회 조합원 대상

대전 탄동농협(조합장 이병열)
은 26일 탄동농협 문화센터 대회
의실에서 코로나 사태로 잠시
중단됐던 조합원 운영공개를 실
시했다.

운영공개 대상은 영농회 반석
1,23동과 하기2동 조합원으로 70
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탄동농협 19개 관할 전
영농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운영공개에 참여한 A조합원은

"탄동농협에서 실시한 운영공개
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업에 대해
알게 해주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
해 주어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병열 조합장은 "2024년은 농
업인의 삶이 한층 나이지고, 활기
를 찾는 영농회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농협 사업 전
이용으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
록 함께 해주신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대전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

구매비용의 70% · 최대 70만 원 지원



인증 받은 제품이라도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공고문은 26일부터
관할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고시·공고문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세대원
수·자치구 거주기간에 따라 지
원대 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으
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을 지급받
으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가정용 음식
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총 376대를
설치 지원했으며 음식물쓰레기
는 638%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
다.

●정정●

회계 순회교육



최재구 예산군수 = 27일 오전 10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지도자 양성 및 회계 순회교육에 참석.

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



이용록 홍성군수 = 26일부터 31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피너들어 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 참석.

나성동·보람동에 문화거리 조성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24년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대상'으로 나성동과 보람동 2곳을 최종 선정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 지원, 거리 활동을 위해 2020년부터 시와 문화 관광재단이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시각예술과 거리공연이 공존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가치누리 문화거리 추진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나성동, 보람동을 최종 선정했다.

시와 문화관광재단은 내달부터 선정 대상지의 민관협의체와 함께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거리조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민, 지역예술가, 상인 등과 의견을 나누며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며 "거리경관 조성, 야외공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거리 활동을 불어넣는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산상설시장 활성화로 '골목막걸리' 대박

지난해 100만병 판매 돌파·예산쌀 140톤 소비효과 거둬



예산 상설 시장 조성 초기부터 청년 창업에 앞장섰던 골목 양조장(대표 박유덕)이 예산군과 민관 협업을 통해 성장하면서 지난해 골목 막걸리는 100만병 판매를 달성

했다.

골목 막걸리는 농업 회사 법인 주로(주)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오리지널, 예산 사과 등 세 종류의 상품이 있고 지난해 100만

병 판매로 예산쌀 약 140톤을 사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예산 시과 막걸리는 1병 당 예산 사과를 1개 이상 넣어 판매량 증가에 따른 지역 농산물 소비량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골목 양조장은 예산 상설 시장 내에서 충청도 지역 술을 함께 판매해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을 40여 명 이상 고용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또한 골목 막걸리는 지난해 충남 턱주 부문 상위 10위권으로 진입한 바 있으며, 한국 국가 대표 소스리에(김별사)가 심사에 참여한 2024년 전통주·한국 와인 베스트 트로피에서 최고 등급인 '그랑골드(프리미엄)'와 '골드(오리지널, 예산사과)' 3관왕 수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등 한국을 대표해 명이 축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덕 골목 양조장 대표는 "골목 막걸리의 우수한 품질과 그에 따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예산 시과 막걸리는 1병 당 예산 사과를 1개 이상 넣어 판매량 증가에 따른 지역 농산물 소비량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골목 양조장은 예산 상설

시장 내에서 충청도 지역 술을 함께 판매해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을 40여 명 이상 고용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또한 골목 막걸리는 지난해 충

남 턱주 부문 상위 10위권으로 진입한 바 있으며, 한국 국가 대표 소스리에(김별사)가 심사에 참여한 2024년 전통주·한국 와인 베스트 트로피에서 최고 등급인 '그랑골드(프리미엄)'와 '골드(오리지널, 예산사과)' 3관왕 수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등 한국을 대표해 명이 축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필수 의료 진료 공백 최소화 당부

김기영 행정부지사, 단국대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방문

충남도가 정부 의약 정원 발 표 이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도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단국대 병원을 찾아 응급 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 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 병원 병원장, 박희곤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으며, 단국대의 견의·요양 사항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단국대 병원 시설을 순회·점검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공의 집 단행동으로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 서를 제출했으며, 224명(74%)이 근무자를 이탈했다.

대부분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일탈률이 더 높으

김정환 기자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청취

예산군,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대상

예산군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시장 공개되는 시가 표준액을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또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위택스(www.wtax.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 표준액 변경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해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 지방 세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까지 결정·고시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세종시, 미래 위한 지혜 교류의 장 '공직자교육센터' 개소

신규임용과정 기본교육·공공기관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과정 운영

다.

공직자교육센터의 주요 업무는 ▲세종시 신규임용 공무원 기본교육 ▲세종시 재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세종시 공공기관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시는 이번 세종시 공직자교육센터 개소로 시정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 우수한 공직자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2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주간 세종시 신규임용후보자 16명을 대상으로 국·시정 및 공직가

치, 직무역량, 소양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공사,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로컬푸드(주),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등 7개 공공기관과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문 교육·제공 기관으로 시정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 우수한 공직자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세종시 공직자교육센터 개소로 시정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 우수한 공직자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홍성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3월 22일까지 접수,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대상

홍성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 기간(2024. 4. 22. ~ 6. 21.)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해소 방안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며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 및 분쟁 중인 시설, 개별 법점점대상 시설은 제외된다.

이에따라 할인점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할인점 이용 대상을 기준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서 2자녀 이상 이면서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할인점에서는 다자녀 가족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이용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이에따라 할인점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할인점 이용 대상을 기준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서 2자녀 이상 이면서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할인점에서는 다자녀 가족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이용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족 할인점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로 음식점, 학원, 병의원 등 관내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신청은 군청 누리집 (www.yesango.kr) 내 고시·공고를 참고해 방문·우편·이메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할인점 모집을 통해 친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관업체에 대한 인증 마크 부착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국복 및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신청방법은 3월 22일까지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건축·전기·가스 분야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등 조치방안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점검 신청을 부탁드린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점검 신청을 부탁드린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국복 및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국복 및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국복 및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국복 및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국복 및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국복 및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점검신청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점검신청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점검신청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점검신청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점검신청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점검신청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및 위험 시설물에

우리/동/네

천안시 “의료공백 최소화” 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



천안시청소년재단, 올바른 보훈 제도 이해 등

충남동부보훈지청과 업무협약

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상경이 지난 22일 충남동부보훈지청(지장이용기)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보훈 제도 이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보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청소년의 보훈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보훈대상자 및 보훈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상경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추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보훈지청과 함께 보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청소년수련관, 7개 기구 청소년 160여명 구성

청소년자치기구연합 발대식

천안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4일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 2024년 청소년 자치기구연합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치기구는 운영위원회, 자원봉사단, 문화기획단, 동아리연합회, 방과후아카데미운영회, 청다움 서포터즈 등 총 7개 기구, 청소년 160여 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연간활동 소개, 위촉장 수여, 대표이사 축사 및 자치기구 청소년 격려로 진행됐다.

수련관은 청소년자치기구연합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안 및 프로그램 기획, 청소년 시설·활동 모니터링, 각자의 특기를 살린 동아리활동 등 다양하고 주도적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상경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치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꽃밭, 천인의료원과 장애인 건강증진 협약 체결
장애인사업체활성화사업 천안시 꽃밭은 지난 23일 천인의료원과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관리가 대상자발굴 및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연계 등 상호 협조 통합사례관리,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성환읍 행복기금지원단, 새내기 대학생 입학 장학금 전달
성환읍 행복기금지원단(단장 이경란)은 26일 저소득 가정 새내기 대학생들의 첫 대학생들을 응원하며 입학 장학금을 전달했다. 을에는 2명의 학생에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

천안시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대응체계인 ‘재난 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돌입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26일 0시 기준 천안시 전체 수련 병원 3개소의 전공의 263명 중 204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

됐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의 77.5% 에 달하는 규모이다.

박상돈 시장이 본부장을 맡게 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신속대응·수습복구를 위해 재난 상황을 총괄·조정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 및 주민 홍보·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해 휴진에 참여한 전

공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 했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로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는 등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 중 훈련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되는 비대면 진료 허용과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기관, 야간 휴일 진료기관 등 운영 정보를 천안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누리 소통망 등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2553)와 동남구보건소(041-521-2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오이·멜론등 과채류 식물바이러스 감염 진단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오이, 멜론 등 과채류 재배 농기를 대상으로 식물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고추주안모를바이러스(PMMo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등 7종의 원예작물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 45점을 7개 지소에 보급했다.

진단키트는 원예작물 즙액을 시약에 섞어 3~4방울 떨어뜨리면 즉시 반응해 현장에서 감염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으로 2분 이내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센터 대내 또는 전화접수를 통해 바이러스 진단요청이 가능하며 현장 방문 바이러스 감염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예작물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조기진단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바이러스 여부를 진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천안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기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기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청년월세 수혜 중인 청년들도 12회 차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월세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세한 사항은 천안 청년포털 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한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한화진 환경부장관, 천안 백석사용종료위생매립장 활용방안 모색

매립시설 상부에 조성중인 파크골프장 공사현장 방문

천안시는 26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백석사용종료위생매립시설 상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용종료생매립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진 장관을 비롯해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은 백석사용종료위생매립시설 관리 및 추진 현황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황을 살폈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74 일원

의 백석위생매립시설은 1996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2002년 사용 종료됐다. 매립면적은 4만 5,800㎡, 매립용량은 59만 1,666㎥이다.

천안시는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백석사용종료위생매립시설 상부 5만 7,242㎡에 파크골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97억 원을 투입해 5만 7,242㎡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한다.

앞서 지난해 침출수처리시설 부지에 3억 3,000만 원을 들여 반려인쉼터를 조성했으며,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노면청소차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방치되었던 매립장을 활용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벤치마킹 관심

전남도 이민정책과 사업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천안시가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전남도 이민정책과 외국인 지원팀이 다문화이주민+센터 내 설치돼 있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 및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2017년 개소해 외국인주민의 언어소통의 어려움 해소, 생활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16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상담통역 수요에 따라 2024년 통역사 인원 배치를 확대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지속적 인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미 여성기족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주민, 다문화기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선진행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문화재단, 단국대 글로벌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MOU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글로벌·문화 융합 인재 양성 추진



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홍보, 시설 운영, 인력 지원 공유 등과 같은 시장도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문화 융합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관학 상호협력 체계 구축으로 고품격문화도시 천안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들 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세계화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성환읍 행복기금지원단, 새내기 대학생 입학 장학금 전달
성환읍 행복기금지원단(단장 이경란)은 26일 저소득 가정 새내기 대학생들을 응원하며 입학 장학금을 전달했다. 을에는 2명의 학생에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포토 뉴스



태안경찰서, 멀종위기 상괭이 구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해변가에서 멀종위기종인 토종고래 상괭이 한 마리가 갯벌에 고립된 상태로 발견됐다. 26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쯤 근흥면 용신리 해변 갯벌에 상괭이 한 마리가 갯벌에 고립된 상태로 바다로 못 나가고 고립되어 있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갯벌에 고립된 상괭이를 발견, 피부가 공기애로 노출되어 마르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닷물을 적셔주고 천으로 김싸운 후 112순찰차 허착석에 심고 200여미터 떨어진 마을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해변가 인공 수족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옮겨 멀종위기종인 상괭이를 구조했다.



김종인 보령해양경찰서장, 농무기 대비 해상치안 현장점검 나서 김종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은 26일 경비함정에 탑승해 관할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하고 최일선 경비함정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은 인개가 반반하게 발생하는 농무기(3월~7월)을 맞이하여 해양사고를 예방·대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재난대응 긴급통신체계 구축 역량강화 교육 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지난 25일 아침에 무선기사자격을 보유한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대형재난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긴급통신 체계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아파트 피난·방화시설 일제 단속**아산소방서, 오는 3월 6일까지 관리실태 점검**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오는 3월 6일까지 아파트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아산시 관내 109단지를 대상으로 피난·방화 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유지·관리 실태 적정성을 확인하며, 또한 아파트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제한고장장치 사용 여부 실태점검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옥상출입문 당시 개방 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확인 등이다.

소방안전체험교실 연중 운영**청양소방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고취 등**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한다.

체험교실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소방시설 계통도 교육 ▲디중이용업

소 체험 시설 활용 화재 대피 교육 ▲피난사다리, 완강기, 미끄럼틀 등 피난시설 체험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 ▲풍수해체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이다.

신청 대상은 5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1회 20명 내외 단체접수만 가능하며 1일 2회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이며, 이용 방법은 청양소방서 대응예방과 041-940-7264로 유선 연락 후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 강력 단속**경찰청, 2월 26일~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 추진**

경찰청은 각 시도 차지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월 26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세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어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월 26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범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

속을 한다.

음주시고 디발 지역, 유릉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하여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괴리불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승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

험 범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탐색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단

속하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진용차로, 끼어들기 등 악체 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향하고, 허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논산소방서,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2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 인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소방관련법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소방서는 위법 사항의 사안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점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훼손, 피난 방화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확인 등이다.

논산=김성구기자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 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공시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등을 단속한다.

특히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이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방침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해환경의 경우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 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식품안전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의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지도·점검 등 학교 식당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가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를 확인해도록 한다.

제품안전과 관련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당진소방서, 대형재난 발생 대비**긴급구조통제단 불시출동훈련**

당진소방서는 지난 25일, 대형 재난 발생 대비 긴급구조통제단의 신속한 가동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신속가동반'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이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회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조직으로, 신속가동반은 긴급구조통제단원 중 당진시 거주자 30명

으로 구성해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기 전에 한 발 앞선 출동으로 긴급구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신속가동반 불시출동훈련은 비상소집이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말 야간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절차 점검, 개인별 임무부여 등을 진행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예산군보건소, 지역사회 내 의료취약계층**든든한 돌봄울타리 조성 힘쓴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벌이 돼 주는 서비스이며,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14일간 가사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돌리치료사가 직접 찾아가는 희망기운 방문재활사업

희망 기운 방문 재활은 재활 병원 퇴원 후 기능 회복기 재활 환자나 최근 5년 이내 장애 진단을 받은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으로 돌리 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동자 지도 및 관찰구축 방지를 위한 균형 강화 운동 교육,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기존 예산을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를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소외된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자립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기암환우 신체적·정신적 통합돌봄 제공

보건소는 재가 암환자의 신체·정신적 일상 회복을 돋고자 건강 증진 환경 조성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연 4회 진행되었던 자조 모임은 상반기 2회로 나눠 1기 수당 4회씩 프로그램을 진행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정서적 지지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열어나갈 방침이다.

예산=박제화기자

“낮보다 즐거운 밤의 마법세상으로 초대합니다”**대전오월드 나이트 유니버스 3월부터 11월, 밤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

동절기 재정비에 들어갔던 대전오월드 나이트 유니버스가 오는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야간 경관조명과 미디어아트, 고보조명 등 화려한 빛으로 가득 채워진 나이트 유니버스는 끊임없이 포토존 등 더욱 보강된 콘텐츠와 공간 조성으로 관람객의 기대를 채워줄 예정이다.

나이트 유니버스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를 제

외하고 3월부터 11월, 밤 6시부터 10시까지 상시 운영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일 휴무)

한편 오월드는 3월 23일부터 봄 시즌 축제(O! 색 컬러풀 페스티벌)와 야간 개장을 선보여 관람객에게 낮부터 밤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의대 증원 2천명 최소한 규모…일정 변경 안해”

교육부, 각 의대 개강 연기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

교육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기간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축한 것이다.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은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정원 2000명은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모다”면서 “2000명은 되어야 의사 수요에 맞고 응급실 빨빨이나 기초 의학분야 의사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2000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확대를 350명만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의대 정원 350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야 당시 의·정 합의로 줄였던 351명을 되돌리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 배정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3월 4일에 마감되는 의대별 증원 수요조사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고 뒷받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4일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배정작업을 하게 된다”며 “기금 적이면 3월 말까지 원료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시기는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 최대한 서둘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 공식적인 증원 연기 신청은 없었다”며 “만약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3월 4일까지인 정원 신청기간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입시 때문에 학생과 학부 모도 기다리는 상황이고 미상 늦출 수 없다”면서 “빨리 정원 배정을 해야 한다. 의대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선 개강을 1주 앞두고 있는

이번 주가 의대생 단체행동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수업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한다면 유급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은 의대 학사 규칙 특성상 한과 복리에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유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학사관리 차원에서 각 대학에서 대처할 예정”이라며 “저희들은 다음주부터가 개강이기 때문에 이번 주안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의대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교육부가 월도와드릴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로 하며 시기에는 학생과 학부 모도 기다리는 상황이고 미상 늦출 수 없다”면서 “빨리 정원 배정을 해야 한다. 의대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학기 대비 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

충남교육청, 이달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도내 유치원·학교 28개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신학기 대비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충남 도내 유치원, 학교 28개교원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식중독 발생 통계로 봤을 때, 개학기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방학 중 공시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재료 취급관리 및 소비기한 준수 ▲

개인위생관리 ▲급식실 청소관리 등 급식 실 위생안전의 취약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신학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시작을 위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방학 중 공시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3·1절 105주년 기념 전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세종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진행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청 1층에서 3·1절 105주년을 기념한 ‘2024년 제1회 한 누리길 그림산책 독립운동가의 초상화 전(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교직원, 학생, 시민에게

송고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독립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하여 세종예술고등학교 예대움 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학생들이 직접 그린 독립운동가의 초상화 14점을 전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구, 유관순, 안중근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만 아니라, 지복영, 강영소, 김란사 등 비

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되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이번 전시회는 여러 독립운동가의 송고한 회생과 용기를 되새기며, 그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현 세대에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정성껏 그린 여러 독립운동가의 초상화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이 참여하는 ‘한누리길 그림산책 전시회’를 연중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표현의 기회를 얻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세종=김대선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등

2024 학년 기초학력 진단의 달 운영 연수

‘부정부패, 갑질 부렸 깨기’ 행사 실시

당진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부럽 깨기 행사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부정부패, 갑질 부렸 깨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 갑질을 끝내고 후도에 담아 깨부스는 부럽 깨기 행사를 운영하며, 우리 풍속의 중요 행사인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교육지원청은 2023년 당진교육의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썼으며, 당진=최근수기자

2024년에도 다양한 행사와 교육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희수 교육장은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 부럽을 깨며 부스럼을 예방한 것처럼, 전 직원들이 이번 ‘부정부패, 갑질 부렸 깨기’ 행사를 통해 부정부패와 갑질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예산교육지원청, 취약계층 학생 성장 지원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간담회’ 실시



올해에도 ▲예산군기업인협의회는 예산군 기업에서 후원금 조성 ▲대한적십자사에 산지구협의회는 반찬조리 및 각 가정으로 전달 ▲예산 교육지원청은 학생 선발과 관리의 역할을 맡아 관내 편부·조손·방임가정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밀반찬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예산군기업인협의회(회장 엄창섭)은 “5년째 예산군 기업인들이 뜻을 함께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으며 ▲대한적십자사 예산지구협의회(회장 조두경)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취약 계층 학생 밀반찬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의견과 위기 학생 발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예산=박재화기자

공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52교) 업무 담당자 대상

2024학년 기초학력 진단의 달 운영 연수



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초3, 중1)와 기초학력 진단조사(초2~6, 중1~고2)가 실시된다.

초·중·고 학교 담당 교원들은 차질 없는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운영 방법을 인내하고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실시를 위해 학교 내 시설 및 준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류동훈 교육장은 “좀 더 실제적인 맥락에서 미래 사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인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기록을 통해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지역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설립자, 행정 실장 등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사립 유치원 급식운영 관리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사항 ▲유아학비(외국국적) 및 주거지원 ▲아산 유아교육 주요사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립유치원 담당자들이 평소 업무 처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서우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리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유치원 교육력을 제고하고, 유치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및 공교육 기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2024 학년 기초학력 진단의 달 운영 연수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등

및 공정한 시안 심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던 심의위원회 위원(동부 47명, 서부 49명)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어서 각 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심의위원회 임기 시작에 앞서 위촉식을 기쳤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보고 및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전체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심의 전문성 향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심의 사례 및 판례 분석 등의 연수에 초점을 두었으며, 동부는 위원회 운영 현장 전문가, 서부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과적인 질의 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정환기자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건강 식자재' 나눔

道-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와 탈북 취약계층 126가정 지원



충남도는 26일 도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가정의 긴강하고 활력 넘치는 봄맞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와 건강에 좋은 식자재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26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요 구성품은 미역, 김, 건포고버섯 등 건강한 먹거리다.

도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내 탈북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역점과제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선정하고 ▲생활밀착형 경제 지원 ▲가족 통합 교육 서비스 ▲시군특화 지원 ▲인식 개선 ▲초기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청년들 주거 지원' 240만 원 월세 지원

아산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사업(2차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사업)'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아산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에도 가입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기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기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6일(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아산시 청년센터 '청년아지트 나와유(온양점 및 배방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http://asian.go.kr/haeil>)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귀 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아산시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등 아산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아지트 나와 유 누리집 (<http://asian.go.kr/hae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홍성군, 3월 8일까지 선착순 170대 모집



홍성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이며, 1

인당 1대 기준으로 선착순 170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과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또는 QR코드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 사진·번호판), 주행 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10월까지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며, 감축 실적 산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누적 주행 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 거리를 참여 시점부터 참여 종료 시점(올해 10월)까지의 주행 거리와 비교하여 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한국타이어 임직원 대상 '나만의 캘리그라피 증정 이벤트' 진행

대전공장·금산공장 23일 한국엔지니어링랩에서 각각 진행



'나만의 캘리그라피 증정 이벤트'를 각각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원들이 평소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응원 메시지나, 가훈, 세례 소망, 다짐, 덕담 등을 캔

리그라피 전문 작가의 도움을 통해 캘리그라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접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원들을 위해 23일까지 문자 및 메일 접수를 받아 원하는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제작해 전달했다.

서의 돈 한국타이어 안전생산기술본부장은 "임직원들이 동료나 가족 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재미있고 아름다운 캘리그라피로 제작해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페릴리레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조율하며 즐겁게 업무에 몰입하고 쾌적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내 어린이집', '사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내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페릴리레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송병배기자

당진시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

농지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해 영농기반 확보

당진시가 청년·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어 청년과 여성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는 영농기반인 청년·여성 창업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 주거지원 사업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청년 농업인 임차료 지원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동안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9세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 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오는 29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농형태 다양화 등 농업·농촌의 변화에 발맞춰 여성 농업인의 여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마을 단위 프로그램 지원사업 ▲여량 강화 교육지원·워크숍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사업량을 2배 확대해 추진하며,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20~8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편이장비 구매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사업량을 2배 확대해 추진하며,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교육

식탁으로 바로 가는 푸드플랜 정책이 대안과 가능성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한 교육생은 "그동안 농업인인 나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해 준 직매장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유통 경로 없이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푸드플랜 시스템은 지역 중소영세농에게 꼭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계속 생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돈곤 군수는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 소득 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거리 공급 체계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직매장 출하 농가 확대와 출하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새로운 농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생산자에게 유통의 부담 없이 소비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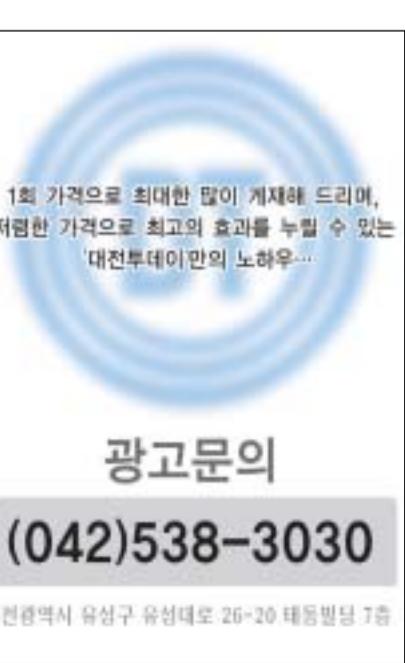


배재대, 고교 재학생 취업지원 나선다

배재대학교(총장 김옥)가 대전·충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배재대는 대전충남권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고용노동부의 3대 취업 중점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유일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중소시랑나눔재단, 서울랜드에서 선덕원 보육원 아이들과 놀이기구 타기 등 행사를 진행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지난 24일 중소연합봉사단 20명과 함께 선덕원 보육원 아이들과 서울랜드에서 놀이기구 타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정

임사회 본회의



박경규 아산시장
=2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
서 열리는 '제247
회 임사회 본회
의'에 참석.

성금 전달



오성환 당진시장
=27일 오후 5시
30분, 서천군청에
서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성금을
전달.

영농정책기술 교육



가세로 태안군수
=27일 오후 1시
30분 태안군농업
기술센터에서 열리
는 '신규농업인
영농정책기술 교
육'에 참석.

정기총회



김동근 청양군수
=27일 오전 10시
청양복지타운 회
의실에서 열리는
청양군 사회복지
협의회 정기총회
에 참석.

'옥파 이종일 선생 기념관' 건립 첫발

태안군,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고 외부공간 활용 · 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대



태안군 원북면에 자리한 옥파이
종일 선생 생가지가 태안을 대표하는
역사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
서 박경찬 부군수 등 군 관계자와
군의원, 용역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
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 사
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착수보고회'를 열고 기념관 건립
및 전시물 설치 관련 논의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생가지 주변 종합
정비를 통해 이종일 선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기존 건물(108㎡)을 리모
델링해 기념관으로 만들고 관리동
을 신축해 누구나 편히 방문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이동로와 언덕, 광장 등 기

존 외부공간을 활용해 광복의 여정
과 이종일 선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하고 건
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립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념관 내 전시물 설치 및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는 방문객들이 민

중 계몽에 힘쓴 이종일 선생의 독
립운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 및 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곳곳에 그의 정체성을 알리는 스토
리라인을 만드는 등 경험 및 만족
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오는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은 후 이르면 10월부터 착공에 돌
입,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새
롭게 변모한 이종일선생 생가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 출신 독립운
동가인 옥파 이종일 선생의 뜻을
기리고 태안의 역사문화자원을
가꾸고자 이번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
하게 됐다"며 "이종일 선생의 삶과
대한민국 독립의 과정을 생생히 전
달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 등 사
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옥파 이종일 선생(1858~1925)은 태안군 출신으로
3.1 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
로 활동했으며 언론활동과 교육구
국운동, 계몽운동 등을 펼치며 일
생을 나라에 혼신한 애국 사상가
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태안=김정한기자



민방위 대피소 비상용품함 설치

당진시, 관내 37개소에 라디오·메가폰·응급 구급함 등

당진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민방위 대피소 37개소에 비상
용품함을 설치하고, 유사시 생존능력을 높이는 필요 물품을 비치
한다.

대상은 공공 기관,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학교 내 민방위 대피
소 37개소이며, 비상용품함에는 라디오, 메가폰, 손전등, 응급
구급함 등 비상시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필요 물품을 담았
다.

비상용품함은 위기 상황에서도 눈에 잘 뛸 수 있도록 벽면이나
출입구 등에 비치하며, 앞면에는 비상용품함을 나타내는 한글 표
지판과 민방위 표시가 부착돼 있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안내판도
함께 설치한다.

지난 1월에는 시민들이 대피소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소 일제 점검을 하고, 퇴색된 표지판을 정비했으며, 또한
대피소 입구 주변에는 대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다.

한편 민방위 대피소 위치, 수용인원은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지도앱(카카오맵, 네이버지도, 티맵)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시립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내 공공도서관 3개소 등 총 33개 강좌에 291명 모집



당진시립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부제목 : 관내 공공도서관 3개
소 등 총 33개 강좌에 291명 모집]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립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향상과 자기 계발
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총 33개 강좌에 291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램은 당진시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관내 공공도서관 3개소와
공립 작은 도서관 11개소에서
내달 7일부터 차례대로 진행한다.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조물조
물 책놀이터' 등 8개 강좌가 운영되
며, 할인도서관은 '업사이클링 패
업북' 등 3개 강좌, 송악도서관은
질문이 있는 하브루타 그림책 토
론' 등 5개 강좌가 개설되며, 관내
작은 도서관에서는 도서 관별로
1~3개 강좌가 운영된다.

며, 할인도서관은 '업사이클링 패
업북' 등 3개 강좌, 송악도서관은
질문이 있는 하브루타 그림책 토
론' 등 5개 강좌가 개설되며, 관내
작은 도서관에서는 도서 관별로
1~3개 강좌가 운영된다.

이번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유아
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과 학력 증진 외에도
성인의 문화예술 및 정보 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별도의 수강료는 없으나 강좌별
로 교재비와 재료비는 개별 부담해
야 하며, 수강생 모집은 2월 28일부
터 당진시 평생학습통합플랫폼 '배
움나루'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2023년 기준 화훼 재배현황 조사 실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
월 10일까지 2023년 기준 관내 화

훼농가의 재배현황 조사를 시행한
다. 화훼 재배현황 조사는 농림축

산식품부 주관으로 KASS(농림식
품통제통합플랫폼)를 활용해 추진
되며, 결과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
한 정책 수립·추진 등의 기초 자
료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은 화훼작물 일반현황
과 품목별 재배 현황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일반현황은 ▲재배형태
별 농가 현황 ▲재배인력 현황 ▲
재배시설 현황 등 재배환경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품목별 재
배현황은 ▲절화류 ▲분화류 ▲초
화류(화단용) ▲구근류 ▲종자류
▲화목류 ▲관상수류 등 품목별 재

배면적, 판매량, 판매금액, 시설유
형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자
료실(<http://libmatrigo.koeri.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조사는
화훼 재배 현황을 파악하고 화훼산
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다"며 "관내 화훼농가에서는 2023
년도 화훼 재배현황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화
훼 재배 농업인 육성과 시민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
도시농업축제 및 10월 국화전시회
를 개최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칠갑산천문대 정월 보름달 특별 관측회 호응

청양군 칠갑산천문대가 지난 24
일과 25일, 정월 대보름달 특별 관
측회를 개최해 방문객들의 반가움
을 샀다.

이틀간 비록 날씨는 늦은 눈비람

이 비치기도 했지만, 비교적 따스한
기온과 늦은 시간에 모습을 드러낸
보름달이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었
다.

이번 행사는 모형 달 만들

기, 보름달 포토존, 대보름 소원
드판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주 프로그램인 보름달 관측과 보름
달 사진찍기는 토요일엔 어려웠지
만 일요일에 가능해서 많은 관람객

의 탄성을 불렀다.

천문대 관계자는 "올해 대보름
은 출지 않고 따스하게 내리는 눈
과 밝은 보름달을 만날 수 있었던
만큼 방문객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
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
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아산시는 지역 사회보장 정책과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추진을 위한
'제10기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위원회를 위촉하고 지역사회보장
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로 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무협
의체와 대표협의체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난 16일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에 이어 이번에 대표협의체 위

원을 위촉했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관
련분야의 중간관리자급 실무자와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이
용 및 생활시설의 중간관리자, 관련
분야 공익단체 중간 관리자급 실무
자 등 민간위원 23명과 공공기관
관계자까지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관
련 서비스 제공시설·법인·단체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관
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
할도 수행하게 된다.

동위원장으로는 온주종합사회복지
관 총재인 김숙희 위원이, 실무협의체 위원
장으로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관
관장 정미선 위원이 위촉됐다.

한편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2026
년 2월까지 아산시의 지역사회보장
정책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보
장 활동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관
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
할도 수행하게 된다.

태안군 농어민 수당 82억여 원 지급

1인가구 80만원 · 2인이상 가구 45만원 받아

태안군이 올해 총 82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민수당 지원에 나선다.

군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2억 265만 원(도비 32억 9070만 원, 군비 49
억 365만 원)을 투입,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농어
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급받는 농어업인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4천여 명 가량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이
상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시농협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
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
록한 군민이다.

단, ▲농지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
정된 자 ▲타 시도로 전출한 자 ▲수령 거부자 및 사망자승계자
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짓고 7월경 수당 지급에 돌입할 계획이며, 군청 및 읍·
면에 부당 수령 신고센터를 두고 부정수급자 관리에 나서는 등 사
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지급되었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자
들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각별히 신경쓰겠
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농업부산물 재활용 위한 성공적인 첫 걸음

임시상설시장 시공 발표 '순항 중'

서천군, 시공계획 · 공정방법 설명

서천군이 지난 22일 임시시장 조성을 위해 주요 구조물인 막구조물과 모듈러 구조의 시공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공발표회는 막구조물(농수산물·식당등)과 모듈러 구조 임시동의 안전한 설치 및 품질 향상, 각 공종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군은 1부에서 막구조와 모듈러 구조의 전문 시공업체에서 시공 계획과 세부 공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2부는 현대건설과 각 공종별 전문가의 기술자문 및 공정회의를 통해 공사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발표회가 안전하고 튼튼한 임시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임시시장 개장을 위해 계속해서 온정성과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계룡시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3월 4일과 5일 이를간 염사보건지소에서 '이동 건강검진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동 건강검진의 날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가 협약을 맺어 국가 암검진, 성인병질환 및 전립선암 등에 걸진을 통해 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검진 항목으로 국가 암검진(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일반건강검진(신체계측, 소변검사 등), 성인병질환 검진, 전립선암 검진 등이 있으며, 검진이 필요하거나 검진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계룡시민이라면 누구나 검진 가능하다.

현재 국가 암검진 수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짚수연도에 출생한 자로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위암 40세 이상 남·여, 대장암 50세 이상 남·여(홀·짝수년 구분 없이 매년 수검)가 해당된다. 그 외, 성인병질환 검진 40세 이상 남·여, 전립선암 검진 50세 이상 남성인 계룡시민이라면 검진 대상 조건에 부합된다.

이동검진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화 예약 없이 검진 당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전립선암 검진(51명)과 성인병질환 검진(84명)은 검진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동검진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김성구기자

논산시 e-비즈니스 교육으로 농업인의 온라인 판매 능력 향상



논산시시장 백성현은 지역 농업인들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e-비즈니스 교육 수강생을 4월 11일

와 더불어 이러한 부산물은 가족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농업부산물 사료화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나 폐기물로의 처리가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소각 또는 매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7월 충남지방 정부회의에서 농업부산물 재활용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물성 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에 대해 행정법을 개정해 순환자원으로의 인정이 필요하

다며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다.

아울러 부여군은 양송이 수확후 배지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는데 바로 '양송이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이다.

지난해 10월 센터가 준공되어 올해 1월 처음으로 퇴비를 생산했으며 향후 연간 24만 톤의 수확후 배지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농업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현 군수는 "양송이버섯 수확후배지 뿐만 아니라 원예농산물의 부산물 처리를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신설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더불어 영농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건의와 제도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동정

추진위원회 회의



박정현 부여군수= 27일 오전 11시 여성문화회관 3층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 참석, 오후 14시 군청 서동보리평설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

업무협약



김기웅 서천군수= 27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도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오후 4시 집무실에서 열리는 서천 임시상설시장 조성 업무협약에 참석.

계룡시 개학맞이 식품위생상태 집중점

검조리 · 판매업소 안전지도 · 점검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봄 개학을 맞아 3월 5일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조리 · 판매업소 식품 위생상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달관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안전보호구역 200미터 내 지정된 문구점, 편의점, 분식점, 제과점 등 3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소비기한 준수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 ·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조리 · 판매업소 영업자 기본위생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일부 품목을 수거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위해 우려 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시정 시까지 지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衛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조리 · 판매업소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김성구기자

서천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서천군이 지난 23일 군정 상황실에서 '서천 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공업지역 기본계획) 결정

부군수, 국장, 관련 부서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로부터 과업 내용, 용역 수행 조직 및 절차, 주요 주안점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은 서천군 전역(366㎢)을 대상으로 기존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해 민선 8기 정책 방향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 · 변경하고, 시기화지역에 계획적인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공업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전문가와 함께 민선8기 주요사업, 민원사항 및 군의 특

성 분석을 시작으로 임안(안)작성, 주민공람과 군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과업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군민의 삶의 질과 도직원의 부문인 만큼 군민 중심의 발전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2028년 1월부터 계획관리 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있음에 따라, 군은 성장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봄 맞이 '3DIVA 콘서트' 열려

뮤지컬배우 흥지민 · 김소현 · 정선아 출연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오는 3월 9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3DIVA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가족, 연인,

동료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날 공연에는 대한민국

대표 디바 3인 흥지민, 김소현, 정선아가 출연하여 '오페라의 유령', '캣츠', '지킬앤하이드' 등 뮤지컬 명곡들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리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다.

본 공연은 지난 5일 티켓 오픈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전 좌석 매진되었으며, 공연장 안전사고 방지와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공연장 안내도우미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DIVA 콘서트'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 (042-840-3704)에 문의하면 된다.

이디어 확장이 가능한 '참여형 워크숍'으로 진행하여 위원들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의 전면 확대 개통 및 사용에 앞서 오는 3월까지 주민자치회 회계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현재 까지 70여 명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책임과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는 대표자기구로 마을발전과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자체 활동을 수행한다.

센터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양화면, 외암면 등 일부 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지원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아



시초면 봉선리 천제단 대보름 축제 열려

서천군, 풍년 농사와 마을의 안녕 기원

서천군 시초면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제12회 시초면 봉선리 천제단 대보름 축제가 지난 23일 봉선리 마을회관 일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매년 음력 정월 열흘째, 백제의 부흥을 염원하며 기원제를 올렸던 전통을 부활한 시초면 봉선리 천제단 대보름축제에는 시초면 200여명이 행사를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봉선리 부녀회에서 마련한 오곡밥을 나눠 먹은 후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겼으며, 시초면 풍물패의 공연이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이후, 제상을 차린 후 마을의 안녕과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재문 낭독에 이어 달집우기로 시초면민이 모두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웅 군수는 "조상의 일이 깃든 봉선리 천제단 아래 대보름 축제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가족, 이웃과 함께 달집우기를 통해 소망들을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노력

공동체 자립 역량 강화 · 주민자치 내실화 지원 강화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기술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

주도형 사업 지원을 통해 자립 역

량을 키워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에 한계가 노출되어 왔다. 이에 현장 지향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과 주민의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조성

하는 중심에는 지난 2021년 6월 설립된 '(재)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있다.

센터는 행정과 다양한 시민들의 교류 공간으로의 거점 역할을 특별히 수행하고 있다.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80여 개의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과

자발적으로 조직된 모임 등 공익활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주민 스스로 지역 내 문제

동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최원철 공주시장=27일 오후 2시 시청 집현실에서 열리는 공주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

보령시체육회 정기총회



김동일 보령시장=27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기부 심사위원회 위원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종회의실에서 보령시체육회 정기총회에 참석.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이완섭 서산시장=27일 오전 10시 성연면, 수석동에 소재하는 마성산업, 세진 방문, 오후 2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참석, 오후 3시 서산 청년마당에서 열리는 제2기 청년정책 네트워크 발대식 참석, 오후 7시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81회 서산아카데미 참석.

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 개회식



박병인 금산군수=27일 오후 6시 30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2024년 피너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

만세보령 농특산물 전국 홍보나서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는 공동브랜드 '만세보령'과 우수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차량 외부광고를 활용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와 보령시 대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인택시(관내 222대), 시외버스대전, 수도권 노선 13대, 화물차(전국 53대) 등 총 288대, 1억 6500여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된다.

차량 측면에 부착된 만세보령 로고와 쌈, 포도, 양송이 등 관내 주요 농산물을 홍보하는 랩핑광고가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농특산물 부가가치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도권 및 전국 각지를 누비는 차량들을 통해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와 보령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려 인지도를 높이겠다"며 "보다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특화사업 관계자 협동 워크숍 개최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24일, 공주환경성 건강센터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특화사업 관계자 협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유가게 우수사례 발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아쿠아테라피 단체 힐링프로그램 실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지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사회 안전 증진 조성사업 모니터링, 여성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발굴 등 주요 세부 과제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령인 여성가족과장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특화사업 관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시민참여단의 과제 활동 후 도출된 의견을 공주시 전 부서와 공유해 여성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박범인 군수 주재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예산 1조원 시대 향해 예산 확보 박차



금산군은 지난 23일 박범인 군수 주재로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2026년까지의 정부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과 계속사업 원활한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민선8기 금산군정 공약

및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5년 3005억 원, 2026년 3414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재원별 추진계획을 세웠다.

부서별 확보대상 금액을 살펴보면 제시된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141억 원(총사업비 303억 원) △적벽교 재가설 100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마

전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90억 원(총사업비 128억 원) △스마트 혁신기술 발굴 및 도입 73억 원(총사업비 150억 원) △재해위험개선사업 53억 원(총사업비 7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43억 원(총사업비 61억 원) 등 1247억 원 규모 34개 사업이다.

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할

계속사업은 △제원지구 재해위험 개선 210억 원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272억 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197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1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8억 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43억 원 등 5546억 원(2025년 ~2026년 국도비 대상 금액) 규모 897개 사업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국가 긴축 재정 기조 상황에서 금산군정의 안정적인 추진 및 금산 발전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가 필수"라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계속사업의 정부부 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보령시,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 '손씻기' 체험 행사

감염병 예방인식 제고

보령시는 26일 시청 행보민원실에서 코로나19 이후 긴장이 완화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손을 씻어, 씻고 며자 2024년 손씻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26일은 행복민원실에서 김동일 시장, 보령시보건단체, 여성단체,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씻기 체험과

올바른 손씻기 6단계 교육을 진행했으며, 27일은 보령시립도서관에서 체험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6단계>

원칙을 지키고,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후,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씻어야 하며,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간병할 때도 손을 잘 씻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4년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3월은 전 연령에 대한 손씻기 실

질에도 호흡기 감염은 20%, 설사 질환은 30% 이상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는 물로만 씻는 것 보다 감염병 예방의 효과가 높다. 또한 손을 씻는 30초 동안 약 6만마리의 세균이 제거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4년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3월은 전 연령에 대한 손씻기 실

태조사, 5~9월은 실태조사 참여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감염병 예방 행태교육을 진행하며, 10~11월은 행태변화를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쉬운 백신이라 불릴 만큼 쉽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령을 만들어 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서산시,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연장 선정

고품격 문화예술 시민 제공



충남 서산시가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시는 26일 국립국악원에서 주관하는 '국악을 국민속으로' 참여 공연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악을 국민속으로'는 균형적 문화 발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문화 수요 지역 등에 국립국악원 연주단이 직접 찾아가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이다.

작품은 국립국악원이 선보인 공연 중 평가단의 호평과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수작으로 임선페 전국 20개 공연장에서 연주된다.

시는 국립국악원의 우수 작품 중 민속악단의 '경성유 향가-판을 나온 소리' 공연장으로 선정돼 오는 11월 16일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성유 향가-판을 나온 소리'는 1920~30년대 경성, 100년 전 유성기 음반에 소개된 우리 유행가를 복원해 구성한 작품이며 당시 신식 국장을 모티브로 한 무대장치와 의상을 통해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연출로 인기가 높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의 서산 유치 기념으로 국립국악원의 품격 있는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며 "100년 전 K-팝인 당시 유행가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소리의 정수와 뛰어난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이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다락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정보 공유·인적 네트워크 구축

금산다락원은 지난 23일 소공연장에서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평생교육 실무자, 강사, 매니저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했다.

주요 교육 주제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전반적 이해와 학습자원 발굴 방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법 △홍보전단지 작성법 등이다.

또한 지역의 자원활동가인 평생학습 매니저와 평생교육 관계자들도 교육에 참여, 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이끄는 선도자로서 자긍심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군민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련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공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이에 앞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고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시 시행되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이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제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대 DSC지역혁신사업단, 드론 임무 수행 전문가 대한 수료식

‘드론 전문가 양성 통한 국방 드론 인력양성’ 추진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DSC지역혁신사업단은 지난 25일 교내 애들과에서 12명의 드론 임무 수행 전문가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DSC공유대학 참여대학 지원 교육혁신방안 사업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을 23년 11월 4일부터 24년 2월 25일까지 매주 3시간씩 운영하여 스포츠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배틀드론 경기 참여와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배틀드론 경기에 대한 교육과 배틀드론에 적용되는 베타플라이트에 대한 세팅을 교육 함으로서, 실제 1:1 배틀드론 경기, 22 배틀드론 경기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하여, 교육생이 배틀드



론 선수나 배틀드론 대회 운영에 참여토록 하며, 또한 초/중/고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배틀드론 전문강사 양성과 드론인력양성 교육은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 12명이 4개월동안 참여하여 이론 20시간과 실

습 13시간을 이수했다. 드론전문가 교육을 통하여 드론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대전대 LINC3.0 사업의 창업동아리 사업과 연계 하였고, 향후 지역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배틀드론 교육강사로 기업과 협업하여 참여한다.

변승환 교수는 “전국 50개교에 130여개 배틀드론 팀이 있어 향후 배틀드론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관련 선수와 운영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배틀드론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DSC지역혁신사업단 이봉환 단장은 “드론인력양성은 관련 분야 취업과 창업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가 방위산업과 함께 방위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드론분야 지역 특화 기반 조성에 대전대학교가 드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향후 관련 기업에 학생들 취업과 관련 분야 창업이 되도록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だ.”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세종충남대병원서 현장 의료진 간담회

분만·신생아중환자 진료 현장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세종충남대교병원(원장 권계철)은 2월 20일(월) 오후 4시부터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전국 주요 대학병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분만·소아 진료 강화’ 위한 현장 의료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방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응급,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중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복지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현장 참석 및 화상회의로 연결돼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심장내과 전문의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2차관은 “복지부는 지난해 1월과 9월에 각각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10월에는 분만 및 소아의료 분야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수가 개선방안도 발표했다.”며 “이 대

책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만큼 간담회 내용을 적극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 마련 뿐 아니라 분만과 소아 의료에 집중 투자해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분만하고, 신생아 치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한편 박민수 2차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간담회 이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전국 대학교에서 6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선문대 Bunch팀 우승



아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지원하고, (재)구정문화재단 운영민속박물관이 운영하는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이하 asc)’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공예거점 네트워크를 통해 첨예한 지역 공예 문화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설립된 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역작가, 청년 공예인 및 예비 창업가들에 대한 공예문화산

관하는 이번 표창은 다른 센터에 비해 공예 불모지와 같은 아산에서 공예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았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asc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예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3년간 전시, 교육, 워크숍, 공예마켓 등 지역민들과 함께 공예문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예문화가 활성

화되지 않은 아산시는, 충남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의 창작자를 발굴하고 전문인 양성을 위해 지역 특화상품 개발 지원 및 공예축제 등 지역에서의 공예문화 정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공예창작지원센터는 2019년 경기를 시작으로 전주(2020), 전남(2020), 정읍(2021), 아산(2021), 서울(2022), 청주(2023)까지 총 7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는 그 중의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경귀 시장은 “그간 많은 어려움에도 지역의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asc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 추진할 새로운 활동도 기대되며 앞으로 충남의 공예창작지원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asc의 다양한 소식은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 공식 누리집(www.asc-center.or.kr)과 공식 인스타그램(@asc_onya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작으로, 2023년 대전시청 전시 등 대전지역에서 10년째 전시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행복한 상상’은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하고 표현하는 작품 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작품발전과 지역사회 문화적 역량을 기우고자 이번 전시회를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화폐박물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

화폐박물관은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2023년 한해 전시회 개최, 방학 체험행사 실시, 행복장터 운영 등 총 51건의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3일에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한국의 빛, 전통 민화 그리기 행사’를 개최

한 바 있다. 올해에도 장애인 화폐경제 교육,

송병명기자

충남대학교, 중등교사

임용 시험 147명 합격

‘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충남대학교 147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 사범대학 131명, 교육대학원 13명, 교직과정 3명 등 총 147명이 합격했다.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은 2020년 124명, 2021년 111명, 2022년 132명, 2023년 122명에 이어 올해도 13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입학정원(200명) 대비 합격자 비율 65.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계공학교육과 27명, 기술교육과 26명,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16명, 화학공학교육과 16명, 건설공학교육과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공업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합격자 수를 기록했으며, 수학교육과 12명, 체육교육과 8명, 영어교육과 5명, 국어교육과 4명, 교육학과 3명의 합격자를 각각 배출했다.

충남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습 지원과 교수진의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교원 양성을 위해 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충남대학교

2024년 학교숲 조성교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충남대학교(교장 김기철)는 26일 2024년 학교숲 조성교 교장 및 교사, 행정실장 60명을 대상으로 생태전환 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업인 ‘학교숲 조성 및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원대, 고용노동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돼 1년간 7억4400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목원대는 이번 선정으로 기존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3억원을 포함해 연간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청년의 진로취업을 지원하게 됐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개인별 취업준비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빌드업(Build-up)·점프업(Jump-UP) 프로젝트로 운영한다.

빌드업(Build-up) 프로젝트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잡카어 검사 및 상담 ▲개인별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진행한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프업(Jump-UP) 프로젝트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 대상 수당 지급 등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맞춤형 훈련과 교육지원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당진시-(주)GS리테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시니어 동행편의점 운영 업무협약

당진시는 26일, 7층 접견실에서 김영명 부시장, 이승준 (주)GS리테일 부문장, 박미란 당진시니어클럽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GS리테일(이하 GS25)·당진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동행편의점’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상품 진열, 손님 응대, 계산 등을 직접 한다. 이에 GS25 편의점은 ▲점포 배정 적극 협력 ▲편의점 이미지 개선 및 환경 조성 ▲가맹비 제외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며, 이와 함께 당진시와 당진시니어클럽은 사업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 ▲우수인력 모집 제공 ▲사업 홍보 체계 구축 ▲양질의 노인 일자리 발굴 및 추진 등을 협력한다.

당진시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당진 =최근수기자

한효진 ‘2024 효문화 지원사업’ 공모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은 ‘2024년 효문화 진흥 단체 지원사업’ 및 ‘2024년 찾아가는 효문화 교육 사업’ 참여 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효문화 진흥 단체 지원사업’은 비영리 단체(기관)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효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69백만원이다. 접수기간은 3월 4일(월)까지로 지원자격은 대전광역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활동 중인 공모 해당분야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기관, 법인 등이다. 또한 ‘2024년 찾아가는 효문화 교육 사업’은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효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차 지원규모는 총 50백만원이다. 사업 진행 단체 공모는 2월 23일(금)부터 3월 8일(금)까지 실시된다.

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2024년 학교숲 조성교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충남교육청(교육감 김기철)은 26일 2024년 학교숲 조성교 교장 및 교사, 행정실장 60명을 대상으로 생태전환 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업인 ‘학교숲 조성 및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원대, 고용노동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돼 1년간 7억4400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목원대는 이번 선정으로 기존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3억원을 포함해 연간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청년의 진로취업을 지원하게 됐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개인별 취업준비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빌드업(Build-up)·점프업(Jump-UP) 프로젝트로 운영한다.

빌드업(Build-up) 프로젝트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잡카어 검사 및 상담 ▲개인별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진행한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프업(Jump-UP) 프로젝트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 대상 수당 지급 등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맞춤형 훈련과 교육지원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22일 논산시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보건사업방향 공유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보건사업의 목표와 전략, 주요 추진사업 등을 소개하고, 보건소 4개과 14개팀의 업무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산시 보건사업 설명회 개최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22일 논산시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보건사업방향

공유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보건사업의 목표와 전략, 주요 추진사업 등을 소개하고, 보건소 4개과 14개팀의 업무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p



2024년 백제문화관광벨트 협의회, 대전엑스포아쿠아리움 제휴 협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26일 금산군청 회의실에서 5개 시군구 단체장 및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 정수미 대표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문화관광벨트협의회와 지역간 상생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전엑스포아쿠아리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지혜 교류의 장 공직자교육센터 개소 세종시(시장 최민호)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교육센터'가 조치원읍(재)세종테크노파크 1층에 문을 열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6일 최민호 세종시장, 박란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세종시 공공기관장, 교육생, 시민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2024년 한국농촌지도자보령시연합회 회장이·취임식 보령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250여 명의 회원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촌지도자 보령시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청목환경(주), 아산시에 이웃사랑 성금 600여 원 기탁 아산시는 지난 22일, 청목환경(주)(대표 김문기)으로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관리시총연합회, 청양서 신년 하례식 개최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회장 이종현)는 지난 24일, 청양군 화성농협 비봉지점 사랑관에서 2024년 총회를 겸한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호서대,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호서대학 교(총장 강일구)는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학부생 및 재난안전시스템학과 대학원생들이 '202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누적 현혈캠페인 68회, 1만 2천여 명 참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0년간 이어온 현혈 사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당진제철소에서 관내 혈액 보유율 저하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2024년 1차 현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기존 1일에 한정해 진행해온 현혈을 2일간 진행해 참여율을 높였으며, 현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과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참여 인원에게 소정의 상품도 마련해 전달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랑의 현혈 캠페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매년 진행하는 현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

가 사내 현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제철소의 현혈캠페인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펼쳐오고 있으며, 그동안 68회의 현혈캠페인을 펼쳤고, 누적 참여 인원은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2019년에는 대전·세종·충남권 최초로 단일 기업 누적 현혈자 1만 명 달성을 위한 약정분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혈캠페인을 통해 발생한 현혈증은 참여 인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당진시보건소에 전달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밭대, 제1회 대한민국

대학 창업 대전 공동 개최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단(LINC 3.0)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대학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1회 대한민국 대학 창업 대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밭대학교는 15개 주관대학과 9개 관련 단체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여 대학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액운아 물러가라" 제25회 신탄진대보름쥐불놀이축제 성료

전통 민속 체험·액막이 타령·대형 소원 달집태우기 등 세시풍속 의미 되새겨



해 눈길을 끌었다. 쥐불놀이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변용기 신탄진대보름쥐불놀이축제 추진위원장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기억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전통문화 행사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종 신탄진동장은 "25회 신탄진대보름쥐불놀이축제'가 무사히 개최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신탄진동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탄진대보름쥐불놀이축제는 지역의 대표 민속 축제로 유성, 청주 등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전통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공주 동학농민혁명 유적 답사

'근대한국 개벽종교 공부모임'은 지난 24일, 전국에서 약 40여명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동학과 공주전투(우금티전투 등)를 중심으로 공주지역 답사가 이루어졌다.

'근대한국 개벽종교 공부모임'은 동학 전문가인 박맹수 원광대 명예교수와 주관으로 전국의 동호인·전문가들이 함께 그동안 전북과 충남지역에서 근대한국을 엮어온 동학 등 개벽종교 및 의병전쟁 등 민족운동 유적지를 탐방해 왔고, 이번에 14회로 공주를 답사했다.

이번 공주답사는 정근식 교수(서울대), 신진희 교수(안동대), 김옥수 교수(미국 버팔로대), 박찬석 교수(우금티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청년으로 개벽운동가·예술인 송지용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오후에는 전투지역인 봉정동, 오곡동, 이인면과 효포 지역을 살펴보았다.

이 모임은 다음 달 3월에 부여의 신동엽 문학관을 중심으로 답사 기행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어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종규) 신탄진동은 정월대보름인 24일 현도교 아래 금강변 둔치에서 가족과 이웃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 '제25회 신탄진대보름쥐불놀이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신탄진동은 한해의 풍년을 비는 민족의 대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소중한 세시풍속을 계승하기 위해 1992년부터 '대보름쥐불놀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동은 이번 신탄진 쥐불놀이 축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쥐불놀이 도구를 LED로 변경

윤빛어린이집, 다자녀 출입 학부모에 감사패 전달



건양대학교는 2013년 윤빛어린이집이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아동교육학과 중심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건양대는 위탁운영 과정에서 치위생학과와 건양대학병원 치과와 연계한 구강건강교育 및 유아반 불소도포지원, 언어치료학과 연계 언어발달 부모교육, 작업치료학과 연계 영유아 발달검사 등 대학 인프리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서산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슬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앞두고 도 대표 선발 위해

서산소방서(서장 김상식)가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앞두고 도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제37회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대비한 구조팀 전술훈련으로, 대원 간 팀워크를 강화하고 재난 현장 인명구조에 강한 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대회이다.

서산소방서를 대표로 5명(소방위 조성수, 소방장 이정훈, 소방교 김기범, 소방사 이동석, 한규원)이

구조대 직원들은 ▲개인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집중 훈련, ▲경연대회 영상 분석을 통한 임무별 기술 습득, ▲구간별(방화문 개방 및 협소 공간 요구조차 구조 등) 세부기술 숙달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대회에서 최종 우승팀으로 선발되면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에 충남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갖게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농협중앙회 대전본부(본부장 김영훈)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가 육성·지원하고 있는 시단법인 한국새농민 대전광역시회(회장 백석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결산 보고와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충남

대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단장 천종필)에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새농민 대전시회는 2021년 3월 충남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과 청년창업농 육성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장학금

금을 기탁하고 있다. 장학금은 ▲영농창업교육생 장학금, ▲영농창업 교육 관련 시설장비 구축 지원, ▲현장실습 및 선도농업인 품목별 특강 지원 등에 사용된다.

백석환 회장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는 농업·농촌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새농민회는 새농민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의 자율조직으로 전국적으로 5천 여부부, 1만 1천명에 이르는 농업인 단체이며, 이 가운데 대전시회는 부부 48쌍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시의 향기



김정희 시인의 '코오롱 연기'

모닥불

무거운 아름드리나무를 쪼개서
날씬한 창작을 만들어
제단 쌓듯 모닥불을 피우면
맵고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힘겨운 적응을 시작한다

이내 불이 붙기 시작하자
산불 흉내라도 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릴 듯이

위대한 화력을 자랑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몸을 사르며
이픈 이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고
약한 이에게 기를 북돋는 열정
그것은 차라리 거룩한 희생이기에

강한 나무가 하얗게 부서져
가벼운 재로 남는 마지막 모습은
한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인생길
사람들이 한줌의 빼로 남아도
모닥불처럼 사르던 마지막 사랑

시의 향기



박정기 시인의 '순정에 빠진 시'

만월의 평화

차오른다. 초승이 보름으로
옹달샘 맑은 물 밤새 차오르고

만월의 경이로움
포근함 안겨주고
넘치는 옹달샘
여유로움 선물 한다

가을 산 억새밭에 하얀 꽃 만개하고
초롱한 눈망울 걸 많은 노루 한마리
억새 속 숨죽이며 숨이 있네

보름이 차오른다
걸 많은 노루
억새밭 텔고 나와
만월의 포근함에 먹이 찾아 움직인다
넘치는 옹달샘 목마름 축여 가며

김용현 법학박사의
생활속 법, 또는 우리들 이야기

김용현 시인

(법학박사·전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의 창조적 사고력의 즐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기본이념으로서,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므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제2조).

폐지법인 '한글전용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되던 때에는 "한글"만이 우리의 글자이고, 그 외의 글자는 외래어, 또는 다른 나라의 글자로 인식되어 취급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서도 한글로만 교육하도록 하였고, 공문서 등 모든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한자는 외래의 글자로誤認되었다. 그 때문에 현재 일부 영역 계층은 한자를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조금밖에 모르는 현상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문자생활에서도 한

우리 글자는 법률 제7368호로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뒤 공포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시행됨으로써 사용되었고, 그 뒤 법률 제18761호로 2022. 1. 18.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제1조에서 '이 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漢字는 우리의 韓字다 - 하나

문은 도외시되거나 극히 나이 지긋한 일부 어른들이나 학자들이 아는 정도가 되었다.

실제의 문자생활에서도 이른바 '한글전용화정책'에 따라 한글만 사용하면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배'라고 했을 때, 타는 선박을 얘기하는 것인지, 먹는 과일을 말하는 것인지, 가슴 밀 단전 위에 있는 신체부위를 일컫는지, 또는 한 어머니 한테 낳은 동복兄弟인지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자로만 표시해야 하는 문장형태도 여럿 있어 문제는 곳곳에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한자가 우리(민족)의 글자라고 평생을 연구해 온 Kyuin Lim 박사(한국외국어대학원 언어학박사)는 <지금까지 지난 여러 해 동안 한자는 중국글자가 아니고 우리 글자는 학술적 근거를 끊임없이 옮겨왔고 한글자모는 세종대왕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자 속에 이미 들어왔던 발음기호(기암토)를 찾아내어 우리 한글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둘’로 이어집니다.) (법학박사·시인)

회 ~이치사회 ~우주사회 순으로 ~로 변동 · 변화되어 왔고 변화될 것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는 문자의 생성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발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간에 있어 문자는 여려면에서 중요한 意味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大宇宙에 우주선을 보낼 정도로 과학이 발전된 것이나 오늘날처럼 풍요하게 경제가 발달하게 된 것도 모두가 문자의 德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자가 우리(민족)의 글자라고 평생을 연구해 온 Kyuin Lim 박사(한국외국어대학원 언어학박사)는 <지금까지 지난 여러 해

동안 한자는 중국글자가 아니고 우리 글자는 학술적 근거를 끊임없이 옮겨왔고 한글자모는 세종대왕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자 속에 이미 들어왔던 발음기호(기암토)를 찾아내어 우리 한글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둘’로 이어집니다.) (법학박사·시인)

3.1절, 뜻깊은 가족여행 계획한다면 '충남'으로

독립기념관, 충남보훈관 등 전시·교육·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3.1절을 맞아 충남 천안, 홍성 인근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의 눈길을 이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다음달 1일 제105주년 3.1절 기념 문화행사 '독립선언'을 개최한다.

이날 독립기념관 겨례의큰마당에 서 열리는 행사는 3.1절 기념식을 시작으로, 명예 독립운동가 1919명과 함께하는 독립선언 퍼포먼스, 천안시립풍물단 풍물놀이 등이 뛰어 있는다.

또 퓨전국악밴드 '그리너나'와 '라라양상블' 공연, 'K-타이거즈' 태권도 공연, 국단 '청명' 난타 공연, 육군 의장대 공연도 무대를 장식한다.

독립선언 행사에서는 이와 함께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진행된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스태극기와 함께 한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연면적 2,667m²의 충남 보훈관에는 '보훈의 숲' 및 '보훈가족공원' 등 실외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실외 전시로는 '시간의 터널', '보훈의 분수', '파빌리온'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조형물과 '봉우리의', '상생큐브', '숨결큐브' 등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식민 지배를 이겨내고 독립을 쟁취한 민족의 저력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충남에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리를 되찾기 위한 그날의 한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사설

OECD 최하위권 기록한 삶의 만족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지를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비교적 개인적인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 각 분야의 혼란함이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국민적 정서가 매년 발표되는 '국민의 삶의 질'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0점 만점에 6.5점으로 나타났는데 그 전년도보다 0.2점 오르기는 했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OECD 평균이 6.6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이하인 우리의 위치를 짚자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트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정도다. 삶의 만족도 평가 척도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국인의 눈높이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백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6.5점이고,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6.6점이었다. 경제적인 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내면적 삶, 삶의 역량, 사회적 삶, 물질적 삶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건강은 물론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적 요소 등이 복합되어 고립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고령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비단 고령층만을 위한 대책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각 세대별, 연령대에 맞는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맞춤 정책이 시급하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한집산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을 대비해 각종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당사자들에게는 하루가 시급한 민생법안도 선거에 불려밀려나 있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권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도 지금은 모두 내손안의 가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더 이상 할 경지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사 극단 대치로 환자들만 고통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극단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수술을 절반으로 줄이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 재난경보를 섭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진료 차질을 해소할 수단은 별로 없다.

정부는 공공병원·군병원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지만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진료보조(PA) 간호사는 수술 봉합 같은 불법 진료에 내몰린다. 정부는 면허 정지 '구속수사' 등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전공의들과 의사 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단체 행동에 동조할 뜻을 밝혔다. 특히 3월엔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않고 병원을 떠나거나, 신규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할 조짐이 보인다. 의료 대란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의 피로도는 쌓여만 간다. 비상 진료 체계는 2,3주를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방치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환자 겉으로 돌아가야 한다. 환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정부도 의료 대란의 책임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28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

의료 대란이 악화되면 정부와 의사 단체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론과 동떨어진 단체 행동은 설득력이 없고, 위기감만 키우는 강경 대응은 정부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길 바란다. 24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획한 의료 인력 주체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5일 거점국립 대교수회연합회는 의료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와 의사 단체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의(醫)·정(政)의 극한 대립은 과국만 초래한다.

예산군,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위한 입원 생활비 지원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산군은 올해부터 기존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를 '입원 생활비'로 변경하면서 소득 기준 및 지원금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 1일 최대 8만6720원에서 9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2023년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으로 처음 시행한 입원 생활비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용직·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 국가 일반 건강 검진 기간 중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입원일 및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 까지 군에 거주하며 검진 기간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기관을 가진다.

자다.

단,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급여), 긴급 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 보험 등을 지급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며, 병원 입·퇴원 또는 일반 건강 검진 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근로 취약 계층의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 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른신문

| | | |
|---------------------|---------------------|-------------------|
| 발행·편집인 김현정 | 회장 김성구 | 논설위원 김우영·김성식·김종복 |
|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
|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구독료 월1만 5000원 |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대전투데이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대전투데이

후 원 |

한국기계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생비클린
대표이사 김경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주) 제이콘
JCON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LG 화학
LG CHEM

Hanwha

TOS
Techno Solutions

대생비클린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개발산업

에이치디포장건설주식회사